

이인영 “檢, 국민 심판대 오르는 일 없길”

민주,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비판...“먼지떨기식 수사” 한국당·바른미래 “검찰 자신감 나타낸 것” 파면 공세 지속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을 다시 밝히는 등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24일 검찰 수사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면서 강한 견제에 나섰다.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목표로 먼지떨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 배정에 검찰 개혁 저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도 부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

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중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기가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직 법무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기가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직 법무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두달만에 돌아온 ‘알릴레오’

유시민 ‘시즌 2’ 복귀...조국 장관 의혹 정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시즌 2로 복귀했다. 지난 7월 시즌 1 종영 후 두 달 만이다. 시즌 2 첫 방송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정리했다. 시즌 2는 시즌 1과 달리 주 2회 방송을 할 예정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라이브 방송을, 금요일 오후 8시에는 녹화 방송을 공개한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조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는지 모두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을 깊게 들여다 볼 것을 당부했다.

유 이사장은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만큼 알릴레오 시즌 2에서의 라이브 방송을, 금요일 오후 8시에는 녹화 방송을 공개한다.

‘음주 운전’ 조승수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총선 불출마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이 24일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직 사퇴와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 조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저의 불찰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노회찬재단과 후원회원, 정의당과 당원들에게 큰 누를 끼쳤다”며 “정말 송구하다. 국민 여러분

께도 사죄드립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어제부로 재단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퇴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거듭 재단과 당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결별 초읽기

하태경 징계 철회·孫 퇴진 촉구 비당권파 집단 행동 예고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안철수계 의원 15명이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철회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결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 비당권파 “손학규 물러나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과 관련, “손학규 대표가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해 당을 견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인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하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주 국감도 조국 대선?

한국당, 가족 등 증인 신청 방침...민주당, 난색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증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많이 불러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각 삼인위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과 이재용 삼성전

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총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임시 부경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외대 교수 등을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매년 국감에서 반복된 기업인 증인 ‘무더기 신청’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위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해수위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복 한화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중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주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가 라운지

서삼석 태풍 피해 복구 정부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4일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 시름이 깊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없고 오직 감열에만 보상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업 분야가 약 198억원, 어업 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면서 “피해복구와 함께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수농가가 강한 바람으로 과실이 망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봤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 보상 규

정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5·18 특별법 통과 한국당 협조해야”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24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 이후 1년 넘게 표류해 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연내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대로 조사위원 자격요건이 개정된 만큼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5·18 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맞고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자,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요자 맞춤형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